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

홍 정 순[†]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상담자의 상담관계기술은 공감능력과 역전이관리능력으로 측정하였다. 상담자-내담자 222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에 의하면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상담자의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간의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모형은 초심 상담자 집단과 숙련 상담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 진정성, 상담관계기술, 상담자 지각, 작업동맹

* 본 연구는 홍정순(2015)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정성 척도 개발 및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모형 검증’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홍정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3293, E-mail : day012@ajou.ac.kr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이다. 모든 성공적인 상담에는 고유하게 존재하는 공통 요인이 있다는 주장(Rosenzweig, 1936)이 제기된 이후에, 공통 요인이 무엇이나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 특히 상담자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담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Ahn & Wampold, 2001; Corey & Corey, 2006; Kim, Wampold, & Bolt, 2006; Lambert & Okishi, 1997). Ahn과 Wampold(2001)는 메타 분석을 통해 어떤 상담 기법을 사용하느냐보다 어떤 상담자가 상담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상담자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orey와 Corey(2006) 또한 상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상담 성과에서 상담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상담자의 어떠한 특성과 자질이 중요한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Beutler 등(2004)은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상담자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141개의 변인을 외적 특성, 외적 상태, 내적 특성, 내적 상태의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자의 성별, 나이 등의 외적 특성과 훈련, 경력, 기법 등의 외적 상태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자의 정서적 안녕, 가치 등의 내적 특성과 관계형성능력과 같은 내적 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상담자 요인의 구체적인 특

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영근, 2013;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박수영, 최한나, 2013). 김창대 등(2008)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요인을 이해, 관계, 태도, 기법, 자기 관리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김창대 등(2009)은 상담 전공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 관계, 태도, 기법, 외적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두 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에는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타당화와 수용, 진솔성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상담자의 내적 요인인 진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진솔성은 다양한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ogers는 진실성(genuineness), 일치성(congruence), 실제성(realness)으로 표현하였으며, Jourard는 투명성(transparency), Bugental은 진정성(authenticity)으로 표현하였다 (김미경, 2002). 국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마다 진실성(김미경, 2002; 이향숙, 2009; 홍종관, 2005), 진솔성(곽소영, 이지연, 2013; 최바울 등, 2013), 진정성(김예실, 이희경, 2010; 박성희, 2011; 홍정순, 정남운, 2013)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박성희(2011)는 각 용어의 미묘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진정성을 사용하길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진정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상담자의 진정성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직,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상담자의 진정성을 중요한 치료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Rogers(1986)에게 상담자의 진정성은 진실성, 일치성, 실제

성으로 나타난다. 진실성은 상담자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에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일치성은 상담자가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내담자에게 표현되는 것이 일치함을 말하며, 실제성은 상담자가 전문가적인 태도와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이 됨을 의미한다. Rogers(1961)는 어떤 조건들도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을 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진정한 만남을 강조한다(Buber, 1958; Bugental, 1965; Greenberg, 1986; Miars, 2002).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이면서 상담 관계에 진실하게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홍정순, 정남운, 2013; Boccara, Gaddini, & Riefolo, 2009; Levenson, 1982)으로 나타난다. Lambert(1992)는 모든 치료 이론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Bader(1995) 또한 상담자 진정성은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담자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상담자의 진정성과 상담 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이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연구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Klein, Michels, Kolden, & Chisolm-Stockard, 2001; Kolden, Klein, Wang, & Austin, 2011). Klein 등(2001)은 상담자의 진정성과 상담 성과의 관계 연구 20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34%에서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66%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Kolden 등(2011)이 진정성과 상담 성과의 관계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진정성의 효과 크기는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심리학회 진정성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Norcross, 2001; Norcross & Wampold, 2011). 이는 진정성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정순과 정남운(2013)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담자 진정성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후 연구에서는 진정성 개념에 대한 깊이있는 탐색과 이를 반영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상담관계척도(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의 일치성 하위요인, 자기일치성 척도(Traux Self-Congruence Scale)등으로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얼마나 일치적인지를 측정하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진정성 연구들은 진정성이 일치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차원적인 구성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자들이 진정성을 개인 내적 특성 변인으로 보고, 진정성을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Goldman과 Kernis(2002)는 진정성을 자기이해, 비편향된 처리과정, 행동, 관계 지향의 4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이해’는 자신의 동기, 느낌, 욕구 등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며, ‘비편향된 처리과정’은 자기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은 자신의 가치와 선호경향성이 일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관계 지향’은 친밀한 관계에서 개방성, 성실성, 참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Wood, Linley, Maltby, Baliousis와 Joseph(2008)은 자기소외, 진정한 생활, 외부 영

향 수용의 3요인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자기소외’는 개인의 실제 경험과 의식적 자각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진정한 생활’은 의식적으로 지각된 경험과 행동이 일치함을 나타낸다. 마지막 요인은 ‘외부 영향 수용’으로 외부 영향을 수용하며, 타인의 기대에 순응해야한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기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이 낮고 진정한 생활이 높을 때 진정성 수준 또한 높다고 본다. 홍정순(2015)은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일치성, 내적 경험에 대한 비편향적인 자각, 진심어린 태도의 3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일치성’은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내적 경험에 대한 비편향적인 자각’은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있는 그대로 잘 자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진심어린 태도’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볼 때,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연구 또한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상담 관계에서의 일치성이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상담자의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진정성을 개인차를 나타내면서도 관계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 변인으로 보고, 상담자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동맹은 상담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인이며(Gaston, Marmar, Gallagher, & Thompson, 1991; Horvath & Symonds, 1991), 특히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은 상담 성과의 매우 강력한 예언 변인이다(Horvath & Symonds, 1991; Martin, Garske, & Davis, 2000). Ackerman과 Hilsenroth(2003)는 작업동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상담자 특성과 전문적 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한 바 있다. 유연성, 정직성, 숙련도, 존중할 줄 알며 신뢰로움, 관심을 가지며 우호적임, 따뜻함, 개방성 등이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이었다. 또한 김창대 등(2009)의 연구에서 상담 전공 내담자가 지각한 효과적인 상담자의 태도에는 내담자를 담아내는 용량이 큼, 진솔함, 내담자를 총체적으로 보고 믿음, 내담자에 대한 인간적 관심, 사심 없는 태도의 5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Ackerman과 Hilsenroth(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정직성, 신뢰성, 개방성과 김창대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진솔함, 사심 없는 태도 등은 진정성 구성 개념의 하위 요인인 일치성, 진심어린 태도 등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며, 이는 상담자 진정성이 작업동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Minnillo(2007)는 질적 연구를 통해 진정성이 작업동맹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서준호, 이희경(2014)은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담자의 진정성이 작업동맹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성과의 매우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을 측정하여,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담자의 진정성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선정하였다.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작업동맹은 상담자의 개인적 요인, 상담자의 전문적 활동, 내담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Ackerman & Hilsenroth, 2003; Kivlighan, 1990; Moras & Strupp, 1982). 작업동맹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개인적 요인과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전문적 활동, 내담자 요인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성은 상담자의 개인적 요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담자의 진정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활동으로 상담관계기술에 주목하고자 한다. 관계기술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천윤정, 2004)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Selman, 1980),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최복희, 2009)이 필요하다. 이를 상담 관계에 적용해보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적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역전이 관리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임전옥, 장성숙(2015)은 상담관계기술의 측정 변인으로 상담자의 공감과 역전이 행동 조절을 선정하였으며, 이수림, 조성호(2010)는 상담자의 공감과 인간적, 윤리적 태도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관계기술을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잘 자각하고 관리하며 내담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측정 변인으로 공감 능력과 역전이관리 능력을 선정하여,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관

계기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공감은 작업동맹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상담 성과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문현미, 1989; 이은경, 이해성, 1989; 정한나, 이창환, 2011; Bohart et al., 2002; Greenberg, Elliot, Watson, & Bohart, 2001; Orlinsky, Grawe, & Parks, 1994; 임전옥, 장성숙, 2015에서 재인용). 이를 근거로 공감은 상담에 있어서 명백히 효과적인 변인으로 선정(Norcross, 2001)된 바 있다. Rogers(1959)는 “공감이란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가정적(as if) 조건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양 느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김미경(2002)은 공감은 오직 그 순간에 있어 상담자의 가장 깊은 의지를 진실하게 표현한 것일 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즉, 내담자의 의미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진실된 바램이 있어야 하며, 진실된 관심과 돌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진실된 공감을 위해서는 진정성 개념에서 나타나는 일치성(홍정순, 2015; Goldman & Kernis, 2002; Wood et al., 2008), 진심어린 태도(홍정순, 2015)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진정성 개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자기 자각이다. Goldman과 Kernis(2002)는 자기 이해를 진정성의 중요한 구성 개념으로 보았고, Wood 등(2008)은 실제 경험을 일치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홍정순(2015)의 연구에서는 내적 경험에 대한 비편향적인 자각이 진정성의 중요한 구성 개념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자기 자각은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Watkins(1985)는 파괴적인 역전이 패턴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기 자각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Hayes(1995) 또한 자기 자각이 역전이를 방지

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Robbins와 Jolkovski(1987)는 상담자들이 역전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주는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을 통해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 클수록 내담자로부터 철수를 덜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교숙과 김광웅(2001)은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심지은(2008)은 상담자의 마음챙김이 역전이 관리 능력과 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마음챙김의 자각과 탈중심적 주의가 역전이 관리 능력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일치성, 진심 어린 태도와 공감과의 관계, 자기 자각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공감능력, 역전이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개발한 역전이 관리 능력 척도는 자기 통찰, 자기 통합, 불안 관리, 공감 능력, 개념화 기술의 5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는 공감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 척도를 장세미(1999)가 번안하고 김지은(2005)이 타당화하였는데, 타당화 결과 사례개념화 능력, 심리적 안정, 자기이해, 정서 이면의 이해와 대처, 불안 관리의 5가지 요인이 나타나 원척도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김지은(2005)이 타당화한 척도로, 공감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별도로 측정하여, 공감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상담관계기술의 측정 변인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정리해보면, 상담자의 진정성은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관리하며 내담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내담자가 보고하는 작업동맹은 상담자가 보고하는 작업동맹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이수림, 조성호, 2010; Hilliard, Henry, & Strupp, 2000; Horvath & Symonds, 1991; Mallinckrodt & Nelson, 1991). Mallinckrodt와 Nelson(1991)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을 측정하고 각각의 하위 요인간 상관을 분석하였는데, 평정자가 같은 경우에는 .57~.91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나, 평정자가 다른 경우에는 .11~.26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수림, 조성호(2010)의 연구에서 상담자 변인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 및 상담 성과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illiard 등(200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내담자가 보고하는 작업동맹에 상담자 변인 외에 상담 과정 내의 또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상담자 변인인 상담자 진정성,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가 보고하는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 변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매개 변인으로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선정하였다.

Barak과 LaCrosse(1975)는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척도’를 개발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따른 내담자의 지각을 연구하였다. ‘상담자 지각 척도’는 전문성, 호감도, 신뢰성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expertness)’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정보와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내담자의 믿음을 의미한다. ‘호감도(attractiveness)’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좋아함,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 상담자를 닮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되

며, 내담자가 상담자를 좋아할만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trustworthiness)’은 내담자를 진심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다른 숨겨진 속셈이 없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실성과 개방성, 개인적 이익에 대한 관심 없음과 관련이 있다. Strong(1968)은 상담 과정을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간 영향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상담 관계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rak & LaCrosse, 1975; Strong & Dixon, 1971). 오충광, 정남운(2007)은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과 작업동맹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문가로 평가할수록, 상담자에 대한 호감이 높을수록, 상담자를 신뢰롭게 평가할수록 작업동맹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지애, 강혜영(2016) 또한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과 작업동맹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과 상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이후로,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오경미(2004)는 상담자의 공감 능력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박원주(1998)는 상담자의 고개 끄덕임, 미소,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롭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숙(2014)은 부정적인 역전이 행동과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감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으로 측정된 상담관계기술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변인들 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관계기술,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상담자의 진정성이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담관계기술 향상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작업동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이중매개모형이다. 대안 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 이중매개모형이다. 상담자의 진정성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상담과정 내의 다른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향숙(2009)의 연구에서 진정성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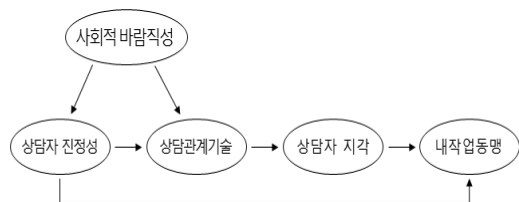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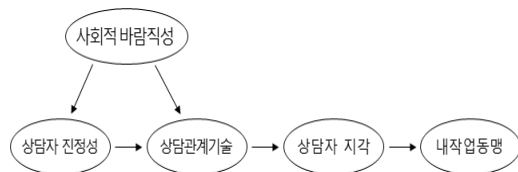


그림 2. 대안 모형

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종 모형을 선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진정성이 상담자의 내적 요인이라면 경력은 외적 요인이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력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Mallinckrodt와 Nelson(1991)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숙련될수록 작업동맹의 목표 차원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냈지만, 과제 차원에서는 작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대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작업동맹 형성에서 상담자 경력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논의하였다. 조영주(1998) 역시 상담자 경력은 내담자 및 상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 점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강혜영(1995)은 상담자 경력은 상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황인호(2004) 또한 상담자 경력은 작업동맹과 전반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Kolden 등(2011)은 상담자의 진정성과 상담 성과와의 관계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상담자 경력과 진정성-상담성과 효과크기 간에 정적 관계($B=.05, p<.01$)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상담자 경력이 유의미한 조절 변인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 경력의 영향을 확인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상담자 경력을 조절 변인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

의 상담자 지각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둘째,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효과는 상담자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상담자

사설 상담기관, 공공 상담기관, 대학 상담기관 등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대면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235부가 회수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뺀 22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나이는 만 22~58세였으며($M=37.35$ 세, $SD=8.05$), 남성은 19명(8.6%), 여성은 203명(91.4%)이었다. 학력은 대졸 6명(2.7%), 석사과정 및 수료 42명(19.0%), 석사 112명(50.5%), 박사과정 및 수료 46명(20.8%), 박사 16명(7.2%)이었다.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1급 수준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자가 85명(38.3%), 2급 수준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자가 81명(36.5%), 3급 수준 및 기타 자격증 40명(18.1%), 자격증이 없는 상담자가 16명(7.2%)이었으며, 상담 경력은 평균 6.49년($SD=5.36$)이었다.

내담자

만 15세(고등학생) 이상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기적인 작업동맹을 맺기 위해서

는 몇 회기의 시간을 필요(Horvath & Luborsky, 1993)로 하며, 상담성과를 예언하는 작업동맹은 3-4회기가 진행된 이후에 안정(구정은, 1999; 김택준, 신희천, 2016; 윤희섭, 정현희, 2010)된다는 보고에 따라, 4회기 이상 진행된 내담자들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235명의 내담자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뺀 22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담자의 연령은 만 15~48세였으며($M=24.11$ 세, $SD=7.83$), 성별은 남성 55명(24.8%), 여성 167명(75.2%)이었다. 내담자가 지각한 주요 호소 문제는 적응 문제가 16명(7.2%), 학업 또는 진로문제가 21명(9.5%), 인간관계 문제가 62명(27.9%), 가정문제가 25명(11.3%), 정서적 문제가 63명(28.4%), 행동 또는 습관문제가 11명(5.0%), 성격적 문제가 23명(10.4%), 기타가 1명(0.5%)이었으며, 설문지를 실시할 당시의 회기는 4회기~151회기($M=18.54$ 회기, $SD=21.50$)이었다. 내담자가 지각한 문제의 심각도는 1~7점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5.49, 표준편차는 1.18이었다.

측정 도구

상담자용 도구

진정성 척도(Korean Authenticity Scale). 홍정순(2015)이 개발 타당화한 척도로 일치성, 내적 경험에 대한 비판향적인 자각, 진심어린 태도의 3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홍정순(201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일치성 .78, 비판향적인 자각 .88,

진심어린 태도 .78로 나타났다.

상담관계기술: 역전이 관리 능력 척도. Van Wagoner 등(1991)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장세미(1999)가 번안하였다. 김지은(2005)은 이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명을 다시 명명함으로써 타당화 분석을 하였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례 개념화 능력, 심리적 안정, 자기 이해, 정서 이면의 이해와 대처, 불안관리의 5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은(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은(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상담관계기술: 공감적 이해. Barrett-Lennard(1962)의 관계검사(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를 정방자(1986)가 번안한 상담관계 질문지 중 공감적 이해에 해당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나는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은(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Crowne과 Marlowe(1960)가 개발한 척도의 단축형으로 이주일(198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3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내며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때때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보다는 앙갚

음하려고 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4,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다.

내담자용 도구

상담자 지각 척도(Counselor Rating Form-short; CRF). Barak과 LaCrosse(1975)가 상담자의 신뢰도, 전문성, 호감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Corrigan과 Schmidt(1983)의 단축형 척도를 오경희(1986)가 번안, 타당화하였다. 7점 척도,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경험이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경희(198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신뢰도 .89, 전문성 .78, 호감도 .77이었다.

작업동맹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 Bordin(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하였으며, 강혜영(1995)이 번안하였다. 상담자 보고용과 내담자 보고용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보고용을 사용하였다. 이수림, 조성호(2010)은 강혜영(1995)이 번안한 질문지 중에서 단축형에 맞는 12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수림이 사용한 것과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상담자는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합의, 과제 동의, 유대의 세 요인, 7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이수림, 조성호(20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목표 합의 .79, 과제 동의 .85, 유대 .80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사설 상담기관, 공공 상담기관, 대학 상담기관 등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에게 연구 협조를 요청한 후, 동의한 상담자들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하였다. 내담자에 대한 요청은 상담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담자는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들 중에서 4회기 이상 진행된 내담자에게 연구 협조를 구하고 동의한 내담자에게 설문지를 부탁하였다. 미성년자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구하였다. 상담 회기가 끝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봉투를 함께 제공하여 상담자가 볼 수 없도록 내담자가 직접 밀봉한 다음 상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

상담자-내담자 쌍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자-내담자 한 쌍을 한 피험자로 설정하여 222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변인들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에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 변인과 잠재 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

에서 연구 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이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검토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면 보통 적합도로 간주한다(김계수, 2010; 홍세희, 2000). 최종 모형의 특성을 살펴본 후 최종 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상담자 경력에 따라 숙련자 집단과 초심자 집단을 구분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집단 별로 주요 변인들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선정된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담자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χ^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구조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잠재 변인은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이며, 상담관계기술의 측정 변인은 공감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이다.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기준(왜도<2, 첨도<7)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진정성은 공감($r=.59, p<.01$), 역전이 관리($r=.64, p<.01$),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r=.36, p<.01$),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r=.4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진정성 하위 요인들과 각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술 통계치와 상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정성($r=.27, p<.01$), 공감($r=.32, p<.01$), 역전이 관리($r=.31,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검증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 내담자의

표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간 상관

	1	1-1)	1-2)	1-3)	2	3	4	5	5-1)	5-2)	5-3)	6	6-1)	6-2)	6-3)
1. 진정성															
상 담 자 측 정	1) 일치성	.83**													
	2) 비편향된 자각	.82**	.50**												
	3) 진심어린 태도	.64**	.33**	.31**											
	2. 사회적 바람직성	.27**	.22**	.12	.31**										
내 담 자 측 정	3. 공감능력	.59**	.50**	.49**	.46**	.32**									
	4. 역전이관리능력	.64**	.46**	.55**	.47**	.31**	.62**								
	5. 상담자 지각	.36**	.27**	.30**	.26**	.11	.34**	.31**							
	1) 신뢰도	.35**	.27**	.30**	.23**	.05	.31**	.25**	.91**						
내 담 자 측 정	2) 전문성	.34**	.28**	.28**	.22**	.11	.33**	.35**	.88**	.70**					
	3) 호감도	.27**	.17**	.23**	.25**	.09	.25**	.22**	.89**	.75**	.64**				
	6. 작업동맹	.40**	.26**	.35**	.33**	.03	.37**	.32**	.73**	.73**	.60**	.63**			
	1) 목표합의	.38**	.24**	.32**	.34**	.04	.32**	.29**	.61**	.61**	.50**	.52**	.92**		
내 담 자 측 정	2) 과제합의	.35**	.24**	.31**	.29**	.04	.34**	.31**	.64**	.65**	.53**	.55**	.90**	.75**	
	3) 유대	.34**	.22**	.31**	.27**	.00	.35**	.27**	.73**	.73**	.60**	.64**	.90**	.74**	.70**
	M	66.82	20.11	22.08	24.63	38.73	66.99	87.34	68.44	23.31	22.36	22.77	67.71	22.61	22.93
SD	7.31	3.57	3.43	2.41	5.75	8.27	10.30	7.89	2.97	3.11	2.75	8.58	3.27	3.00	3.21
왜도	0.28	-0.34	-0.06	0.24	0.05	0.02	-0.28	-0.24	-0.36	-0.52	-0.25	-0.26	-0.43	-0.36	-0.06
침도	0.21	-0.31	-0.31	0.07	-0.38	-0.49	0.45	-0.17	-0.27	0.34	-0.28	-0.56	-0.50	-0.39	-0.64

* $p < .05$, ** $p < .01$

상담자 지각,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측정 변인들이 해당 잠재 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 검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잠재 변인에 대한 각 측정 변인들의 비표준화 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또한 적절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2=63.454(df=38)$, $p < .01$, TLI = .971, CFI = .980, RMSEA = .055로서, TLI와 CFI 지수가 모두 .90 이상이고, RMSEA가 .08보다 낮아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측

정 모형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은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이중매개모형이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담자 진정성간의 상관 및 상담관계기술로의 경로를 설정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의 수치는 표준화된 경로 계수 및 요인 계수를 의미하며, 간명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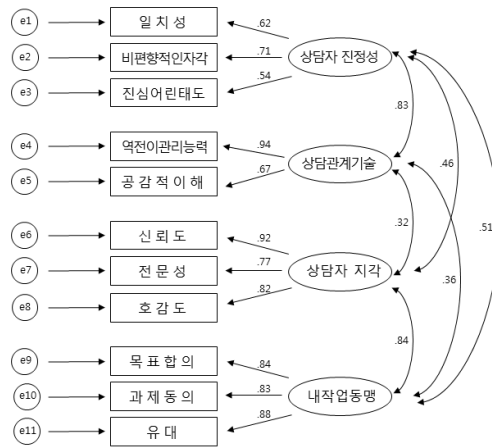


그림 3. 측정 모형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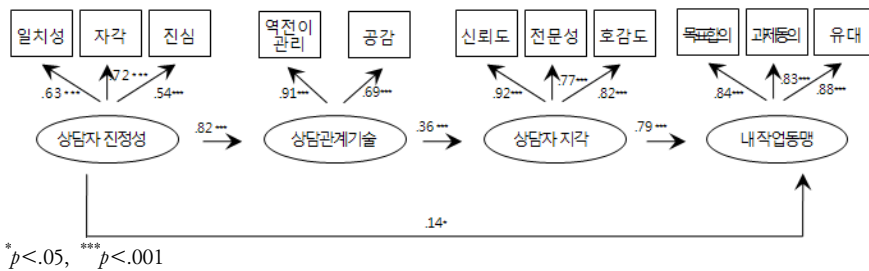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모형 (표준화 계수)

표 2. 연구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94.677	49	.000	.953	.965	.065 (90%; .045 ~ .084)

를 위하여 통제변수의 경로는 생략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TLI와 CFI가 모두 .90이상이며, RMSEA가 .08보다 작아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대안 모형은 연구 모형에 내재된 모형으로 상담자의 진정성에서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으로 연결되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 이중매개모형이다. 대안 모형 역시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대안 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TLI와 CFI가 모두 .90이상이며, RMSEA가 .08보다 작아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상담자의 진정성, 상담관계기술,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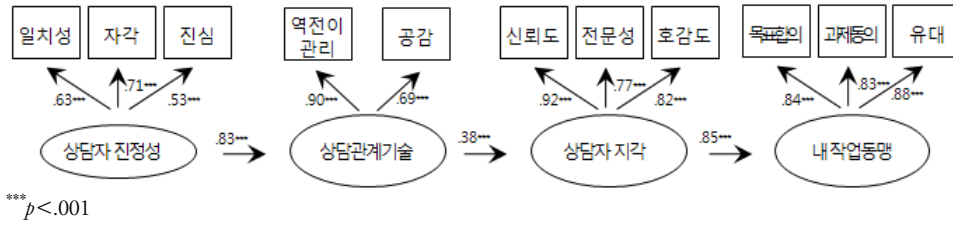


그림 5. 대안 모형 (표준화 계수)

표 3. 대안 모형의 적합도 (N=222)

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대안모형	100.565	50	.000	.949	.962	.068 (90%; .048 ~ .087)

표 4.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지수	χ^2	df	$\Delta\chi^2$	TLI	CFI	RMSEA
연구모형	94.677	49		.965	.953	.065 (90%; .045 ~ .084)
대안모형	100.565	50	5.888*	.962	.949	.068 (90%; .048 ~ .087)

* $p < .05$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통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 차이는 1이며, 이에 대한 $\Delta\chi^2$ 값은 5.89로 나타났다. 자유도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인 3.84보다 크므로,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연구 모형은 대안 모형보다 경로를 한 개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계치 수준 이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으므로 대안 모형보다 좀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 또한 연구 모형이 대안 모형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연구 모형의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종 모형의 표준화 추정치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높은 진정성은 높은 상담관계기술을 예언하며($\beta=.82, p<.001$), 높은 상담관계기술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상담자 지각을 예언하고($\beta=.36, p<.001$), 긍정적인 상담자 지각은 내담자가 보고하는 작업동맹($\beta=.79, p<.001$)을 예언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작업동맹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담자의 높은 진정성은 내담자가 보고하는 작업동맹을 예언하였다($\beta=.14, p<.05$).

최종 모형(연구 모형)의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효과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분해하고,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최종 모형의 직접 효과는 각 경로의 표준화 추정치의 값과 같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종 모형의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최종 모형의 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진정성이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미치는 간접 효과와 상담자의 상담관계기술이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간접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 방법에는 sobel test와 bootstrapping 방식이 있다. Sobel test는 정규 분포를 가정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bootstrapping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간접 효과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간

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방식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Shrout & Bolger, 2002).

1000개의 bootstrap을 생성한 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ias-corrected된 신뢰구간은 95%로 지정하였다. 또한 원자료가 아닌 상관행렬 자료가 사용되었으므로, Monte Carlo 옵션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담자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beta=.23, p<.01, 95\% \text{ Bias-Corrected CI}=[.13, .35]$)는 유의미했으며, 상담자 진정성과 상담자 지각의 관계에서 상담관계기술의 매개효과($\beta=.29, p<.01, 95\% \text{ Bias-Corrected CI}=[.16, .43]$)와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효과($\beta=.28, p<.01, 95\% \text{ Bias-Corrected CI}=[.17, .40]$)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담관계

표 5. 연구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

예언변인	준거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Lower BC~Upper BC)
상담자 진정성	상담관계기술	.821***	.821***	-
상담자 진정성	상담자 지각	.292**	-	.292** (.16-.43)
상담관계기술	상담자 지각	.355***	.355***	-
상담자 진정성	내담자 작업동맹	.375***	.144*	.232** (.13-.35)
상담관계기술	내담자 작업동맹	.282**	-	.282** (.17-.40)
상담자 지각		.794***	.794***	-

* $p<.05$, ** $p<.01$, *** $p<.001$

기술 향상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작업동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에는 최종 모형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한 총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모든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이들 효과를 합한 총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 경력에 따른 다집단 분석

상담자의 경력 구분은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대부분 상담 경력, 교육 경력,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국내에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 경력,

수퍼비전 등을 필요로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과 상담 경력을 기준으로 경력을 구분하였다. 상담 경력을 나누는데 있어서 Martin, Slemon, Hiebert, Hallberg와 Cummings(1989)는 최소 4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상담자를 숙련 상담자로 정의하였으며, 임전옥, 장성숙(2015) 또한 상담 경력 4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4년을 기준 연수로 하여 상담 경력을 구분하였다. 정리해보면, 초심 상담자 집단은 2급 수준 이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이며, 숙련 상담자 집단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과 2급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상담경력이 4년 이상된 상담자들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초심자 집단은 105명, 숙련자

표 6. 상담자 경력 상하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의 공변량 분석 결과

		초심자 집단 (N=105)	숙련자 집단 (N=117)	F (1, 219)
상 담 자 측 정	진정성	64.76 (7.03)	68.66 (7.08)	19.71***
	일치성	19.07 (3.44)	21.04 (3.43)	20.52***
	비편향자각	21.36 (3.60)	22.72 (3.14)	9.54**
	진심	24.33 (2.51)	24.90 (2.29)	4.10*
	공감	64.90 (8.16)	68.86 (7.95)	16.70***
	역전이관리능력	83.92 (10.00)	90.41 (9.62)	29.31***
내 담 자 측 정	상담자 지각	67.31 (7.34)	69.45 (8.25)	4.42*
	신뢰도	23.12 (2.79)	23.48 (3.12)	.84
	전문성	21.46 (2.87)	23.16 (3.11)	19.12***
	호감도	22.73 (2.76)	22.81 (2.76)	0.07
	작업동맹	67.22 (8.25)	68.15 (8.88)	0.67
	목표합의	22.55 (3.26)	22.66 (3.30)	0.07
	과제동의	22.71 (2.83)	23.12 (3.15)	1.05
	유대	21.95 (3.11)	22.37 (3.30)	0.93

* $p < .05$, ** $p < .01$, *** $p < .001$

집단은 117명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 따라 주요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숙련자 집단이 초심자 집단에 비해 상담자의 진정성($F(1,219)=19.71, p<.001$) 공감($F(1,219)=16.70, p<.001$), 역전이 관리 능력($F(1,219)=29.31, p<.001$)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각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진정성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담자가 보고한 변인에서도 상담자 지각($F(1,219)=4.42, p<.05$)에서 숙련자 집단이 초심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특히 하위 요인 중 전문성 지각($F(1,219)=19.1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숙련자 집단은 초심자 집단에 비해 진정성, 공감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으며,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특히 전문성 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집단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141.385$ ($df=98$), $p<.001$, TLI=.955, CFI=.967, RMSEA=.045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모든 요인 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을 기저 모형과 비교한 결과,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elta\chi^2=9.861, p>.05$), 적합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동일성은 지지되었다. 이는 두 집단에서 측정 변인에 대한 해석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경로 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경로 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측정 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elta\chi^2(6)=2.225, p>.05$), 적합도 지수 또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구조 동일성 또한 지지되었다. 이는 두 집단 간에 최종 모형의 경로 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집단

표 7. 상담자 경력 상하집단의 다집단 분석 결과

적합도지수	χ^2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Δdf	$\Delta\chi^2$	p
형태동일성(기저모형)	141.385	98	.955	.967	.045			
측정동일성	151.246	105	.955	.965	.045	7	9.861	.197
구조동일성	153.471	111	.961	.967	.042	6	2.225	.898
진정성 → 관계기술	151.611	106	.956	.965	.044	1	0.366	.545
관계기술 → 상담자평가	151.345	106	.957	.965	.044	1	0.099	.753
상담자평가 → 작업동맹	151.255	106	.957	.965	.044	1	0.009	.924
진정성 → 작업동맹	151.671	106	.956	.965	.044	1	0.425	.514

표 8. 구조 모형에 대한 집단별 모수추정치 비교

		초심자 집단				숙련자 집단			
		B	β	SE	t	B	β	SE	t
진정성	→ 관계기술	2.928	.663	.774	3.780***	3.763	.898	.618	6.088***
관계기술	→ 상담자지각	0.109	.375	.034	3.243**	0.106	.323	.033	3.202**
상담자지각	→ 작업동맹	0.831	.740	.113	7.323***	0.756	.809	.080	9.500***
진정성	→ 작업동맹	0.321	.223	.146	2.192*	0.173	.134	.094	1.842

* $p < .05$, ** $p < .01$, *** $p < .001$

간에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는 경로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계수 하나, 하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측정 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확인 결과, 모든 경로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조모형에 대한 집단별 모수추정치 비교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구조 모형에 대한 집단별 모수추정치 비교 결과를 보면 상담자의 진정성이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에서 두 집단 간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련자 집단의 경우 진정성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반면($\beta = .134, p > .05$), 초심자 집단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23,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관계기술,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진정성은 역전이 관리 능력, 공감 능력,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하위 요인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 과정 및 성과에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Truax와 Carkuff(1967)는 진정성의 본질은 치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치료적 사건이라기보다 상담자의 성격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상담자 진정성 연구는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얼마나 일치적인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진정성의 본질을 협소화시킨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을 일치성, 내적 경험에 대한 비편향적인 자각, 진심어린 태도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구성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럼으로써 개인 내적 특성 및 태도로서의 상담자 진정성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진정성은 전문적 활동인 상담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담

관계기술인 공감,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 및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상담관계기술이 어떻게 하면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Davis (1990)는 공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감은 기법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훈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기이해 및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서로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경청을 통해 발달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역전이 관리 능력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기 자각(Hayes, 1995; Watkins, 1985)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이는 공감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각, 자기 이해, 상대에 대한 존중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불일치하거나 거절되지 않은 것은 상담 관계에서 역전이 감정을 자각하고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관계기술과 같은 전문성 발달에 진정성이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관계 모형 검증 결과,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정직성, 개방성, 진솔성이 작업동맹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김창대 등, 2009; Ackerman & Hilsenroth, 2003)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해림(2009)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이므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기수양, 자기관리가 필요하며, 내적 경험에 대한 자각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Lambert(1992)는 상담자의 진정성은 작업동맹 형성에 기본이 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Bader(1995) 또한 상담자 진정성은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 과정 및 작업동맹 형성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상담자가 진정성 있는 만큼 내담자의 진정성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내적 경험과 일치하여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의 표현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 역할로서가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내담자와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개관 연구와 질적 연구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상담자 진정성은 전문적 활동인 상담 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담자의 진정성과 상담 성과와의 관계 검증 방식은 단순히 상관계수를 보거나(Truax, 1966),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는 변량분석(Rogers, Gendlin, Kiesler, & Truax, 1967; Truax, 1968)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통제하면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살펴보았으며, 상담자의 진정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자의 진정성이 전문적 활동인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담 장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상담자 교육과 관련하여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관계기술의 증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상담 관계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상담 관계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은 내담자의 특성과 상담 단계에 따라 주의 깊고 세심한 판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Minnillo(2007)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진정성 있는 경험과 의사소통의 2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진정성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진정성 경험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나 내담자의 상태를 고려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chnellbacher와 Leijssen(2009) 또한 내담자의 기대, 대인관계 스타일에 따라 진정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Tudor와 Worrall(1994)은 상담 관계에서 일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간에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기꺼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며,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언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일관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과 기준은 상담자의 전문성을 통해서 발달하는 측면일 수 있으며, 상담관계기술과 같은 전문적 활동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관계기술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관계기술이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내담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ogers(1961)는 상담자의 태도가 필수적인 촉진요인이지만,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상담자의 태도 자체라기보다 관계속에서의 내담자 경험이라고 하였다. 즉, 상담관계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지각 및 경험을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은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담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작업동맹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확정된 최종 모형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숙련자 집단이 초심자 집단에 비해 상담자의 진정성, 공감,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준혜, 안현의, 2013; 송재영, 이운주, 2014; 윤희섭, 정현희, 2010; 장세미, 1999; 조수연, 권경인, 2011; Minnillo, 2007).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하위 요인 중 전문성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숙련자 집단인 경우, 내담자 또한 상담자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특히 전문성에 있어서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간에 각 변인들의 차이가 나타난 것과는 달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모형은 숙련자 집단과 초심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담자 경력은 작업동맹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조영주, 1998; Mallinckrodt & Nelson, 1991)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경력과 관계없이 상담자의 진정성은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단별 모수추정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담자의 진정성이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에서 두 집단 간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숙련자 집단의 경우 상담자의 진정성에서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반면, 초심자 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조 모형으로 살펴보면, 숙련자 집단에서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지만 초심자 집단에서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초심자 집단은 이제 막 상담에 입문하여 4년 미만의 상담경력을 갖고 있는 상담자들이며, 숙련자 집단에 비해 진정성 뿐만 아니라 공감, 역전이 관리 능력의 상담관계기술에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직은 상담관계기술과 같은 전문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관계기술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진정성의 직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두 집단 간의 경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최종 모형이 두 집단에 동

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이러한 결과는 초심자 집단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내적 특성 및 태도로서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상담자 진정성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기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상담자 진정성,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고, 상담 성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부 요인 및 일방의 평가에 따른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관계기술 향상 및 작업동맹 형성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특히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담자 집단 내에서 숙련자 집단이 초심자 집단에 비해 진정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것은 진정성이 계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것임을 시사한다. Burks(2009)는 진정성은 안정적인고 영구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Miller와 Stiver(1997) 또한 진정성은 어떤 한 순간에 달성되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진실과 충만감을 증진시키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진정성이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면, 상담자의 진정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자 경력은 그 자체로 진정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훈련 과정

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있는 이론 교육과 수퍼비전, 다양한 임상 경험 등은 상담자의 진정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상담 경력이 늘어난다고 하여 진정성이 발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Tudor와 Worrall(1994)은 모든 상담자가 진정성 있는 상담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임상 경험과 더불어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Heid와 Parish(1997) 또한 숙련된 상담자들은 단순히 외적 상황을 반영하는 ‘기법에 근거한 진정성과 공감’으로부터 ‘자기통합적인 진정성과 공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기 이해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상담 경력과 더불어 자기 이해를 통해 진정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담자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상담자들의 심리치료 현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Orlinsky, Norcross, Rønnestad와 Wiseman(2005)은 14개국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평균적으로 79%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한국의 상담자들은 36.1%만이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유성경, 이문희와 조은향(2010)의 연구에서도 연구에 참여한 국내 상담자들 중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이었다. 자기 이해를 통한 진정성 발달에 있어서 심리치료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나 심리치료가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담자를 교육하고 훈련할 때 심리치료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도 상담자의 진정성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일치성, 내적 경험에 대한 비

편향적인 자각, 진심어린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체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 쌍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협조적이고 순응적인 내담자들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밀봉하여 상담자에게 건네기는 하였으나 상담자를 의식하여 응답했을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담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보내게 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 연령이 만 15세에서 48세로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청소년 내담자와 성인 내담자 각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구조 방정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 방정식은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으며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인과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인과관계를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누어 각 변인들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서는 보다 다양한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정성의 하위요인인 일치성, 내적 경험에 대한 비편향적인 자각, 진심어린 태도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성찰이나 마음챙김, 자기 개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이 역전이 관리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이루어진 상담관계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진정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상담자의 진정성과 공감 능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의 상담자 진정성이 상담 과정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소영, 이지연 (2013). 한국판 관계진술성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4), 2213-2232.
- 구정은 (1999).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 김미경 (2002).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진실성'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02.
- 김예실, 이희경 (2010). 진정성에 대한 고찰. 인간이해, 31(2), 1-21.
- 김준혜, 안현의 (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이해, 34(2), 95-109.
- 김지은 (2005). 부정적 역전이의 발생과정: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상담일반: 상담전공 내담자가 지각한 효과적인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10(1), 83-107.
- 김택준, 신희천 (2016).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91-309.
- 김현숙 (2014).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적 지각 및 감정과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1), 115-136.
- 박성희 (2011). 진정성. 서울: 이너북스.
- 박수영, 최한나 (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 박원주 (1998).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 내담자가 지각하는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준호, 이희경 (2014).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

- 업동맹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717-1734.
- 송재영, 이윤주 (2014).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의 공감유형의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5(1), 125-144.
- 신교숙, 김광웅 (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 4(1), 57-69.
- 심지은 (2008). 상담자의 마음챙김, 공감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미 (2004).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아동 어머니의 상담자 평가 및 부모상담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희 (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 도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교육분석가(상담자의 상담자)의 특성과 선택. 상담학연구, 11(4), 1411-1431.
- 윤희섭, 정현희 (2010). 상담일반: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발달수준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 상담학연구, 11(2), 485-505.
- 이수림, 조성호 (2010).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71-94.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 형 7 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 양식의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향숙 (2009).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전옥, 장성숙 (2015).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491-518.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방자 (1986).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986, 156-165.
- 정지애, 강혜영 (2016). 대학취업센터 상담자의 소명,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작업동맹 간의 관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지, 8(1), 49-56.
- 조수연, 권경인 (2011). 초기상담에서 상담자 경력별 공감정확도와 상담만족도: 임상실제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담자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57-275.
- 조영주 (1998). 내담자의 초기애착과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윤정 (2004).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기술과 공감능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26.
- 최복희 (2009).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기술 함양을 위한 통합적 적용방안 연구. 한국철학 논집, 25, 71-98.

- 최해림 (2009). 상담자의 자기 돌봄. *인간이해*, 30(1), 1-19.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정순, 정남운 (2013). 상담자 진정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71-395.
- 홍정순 (2015). 진정성 척도 개발 및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 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종관 (2005). 상담자의 '진실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1, 597-617.
- 황인호 (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ckerman, S. J., & Hilsenroth, M. J. (2003). A review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positively impac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1), 1-33.
- Ahn, H. N., & Wampold, B. E. (2001). Where oh where are the specific ingredients? A meta-analysis of component stud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251-257.
- Bader, M. J. (1995). Authenticity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in the analyst. *Psychoanalytic Quarterly*, 64(2) 282-305.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6), 471.
- Barrett-Lennard, G. T. (1998). *Carl Rogers' helping system: Journey & substance*. Sage.
- Beutler, L. E., Malik, M., Alimohamed, S., Harwood, T. M., Talebi, H., Noble, S., & Wong, E. (2004). Therapist variables. In M. J. Lambert (Ed.),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5th ed, pp. 227-306), New York: Wiley.
- Boccaro, P., Gaddini, A., & Riefolo, G. (2009). Authenticity and the analytic proces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69(4), 348-362.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16(3), 252.
- Buber, M. (1958). *I and thou* (RG Smith, Trans.). New York: Scribner's.
- Bugental, J. F. (1965). *The search for authenticity: An existential-analytic approach to psychotherap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rks, D. J. (2009). *Psychologists' authentic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USA.
- Corey, M. S., & Corey, G. (2006). *Becoming a helper*. Cengage Learning.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avis, C. M. (1990). What is empathy, and can empathy be taught?. *Physical therapy*, 70(11), 707-711.
- Gaston, L., Marmar, C., Gallagher, D., & Thompson, L. (1991). Alliance prediction of outcome beyond in-treatment symptomatic change as psychotherapy processes. *Psychotherapy*

- Research*, 1(2), 104-112.
- Goldman, B. M., & Kernis, M. H. (2002). The role of authenticity in healthy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5(6), 18-20.
- Greenberg, L. S. (1986). Change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1), 4-9.
- Hayes, J. A. (1995). Countertransference in group psychotherapy: Waking a sleeping dog.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5(4), 521-535.
- Heid, L. S., & Parish, M. T. (1997). The nature of self-integrated authenticity in counselors and therapists. In *Caring in an age of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unseling in the 21st century*, Beijing, China.
- Hilliard, R. B., Henry, W. P., & Strupp, H. H. (2000). An interpersonal model of psychotherapy: Linking patient and therapist developmental history, therapeutic process, and types of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1), 125-13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9-149.
- Horvath, A. O., & Luborsky, L. (1993).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61-573.
- Kim, D. M.,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effects modeling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2), 161-172.
- Kivlighan Jr., D. M. (1990). Relation between counselors' use of intentions and clients'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27-32.
- Klein, M. H., Michels, J. L., Kolden, G. G., & Chisolm-Stockard, S. (2001). Congruence or genuinene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4), 396-400.
- Kolden, G. G., Klein, M. H., Wang, C., & Austin, S. B. (2011). Congruence / Genuineness. *Psychotherapy*, 48(1), 65.
- Lambert, M. J. (1992). Psychotherapy outcome research: Implications for integrative and eclectic therapists. In J. C. Norcross & M. R. Goldfrie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pp. 94-129). New York: Basic Books.
- Lambert, M. J., & Okiishi, J. C. (1997).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psychotherapist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4(1), 66-75.
- Levenson, E. (1982). *Language and healing. In: Curative factors in dynamic psychotherapy*. ed. S. Slipp. New York: McGraw Hill.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3-138.
- Martin, J., Sle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s, A. L. (1989). Conceptualizati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395-400.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3), 438-450.
- Miars, R. D. (2002). Existential authenticity: A foundational value for counseling. *Counseling and Values*, 46(3), 218-225.
- Miller, J. B., & Stiver, I. P. (1997). *The healing connection: How women form relationships in therapy and in life*. Beacon Press.
- Minnillo, P. R. (2007). *A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authenticity as perceived by therapists within the therapeutic encounter*.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 Moras, K., & Strupp, H. H. (1982).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s'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4), 405-409.
- Norcross, J. C. (2001). Empirically supported therapy relationships: Summary report of the Division 29 Task For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4), 495-497.
- Norcross, J. C., & Wampold, B. E. (2011). Evidence-based therapy relationships: Research conclusions and clinical practices. *Psychotherapy: Theory/Research/Practice/Training*, 48(1), 98-102.
- Orlinsky, D. E., Norcross, J. C., Rønnestad, M. H., & Wiseman, H. (2005). Outcomes and impacts of the psychotherapist's own psychotherapy: A research review. In J. D. Geller, J. C. Norcross, & D. E. Orlinsky (Eds.), *The psychotherapist's own psychotherapy* (pp. 214-23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bins, S. B., & Jolkovski, M. P. (1987).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An interactional model using awareness of feeling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3), 276-282.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 Rogers, C. R. (1961).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On becoming a person*. London, Constable.
- Rogers, C. R., Gendlin, E. T., Kiesler, D. J., & Truax, C. B. (Eds.). (1967).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A study of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Rogers, C. R. (1986). Reflection of feelings and transference. *Person-Centered Review*, 1(4), 375-377.
- Rosenzweig, S. (1936). Some implicit common factors in diverse methods o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12-415.
- Schnellbacher, J., & Leijssen, M. (2009). The significance of therapist genuineness from the client's perspectiv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9(2), 207-228.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 methods*, 7(4), 422-445.
- Strong, S. R. (1968). Counseling: An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3), 215-224.
- Strong, S. R., & Dixon, D. N. (1971). Expertness, attractiveness, and influenc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6), 562-570.
- Truax, C. B. (1966). Therapist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and patient personality change in group psychotherapy: A comparison between interaction unit measures, time sample measures, and patient perception measur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225-229.
- Truax, C. B. (1968). Therapist interpersonal reinforcement of client self-exploration and therapeutic outcome in group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3), 225-231.
- Truax, C. B., & Cark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Chicago: Aldine.
- Tudor, K., & Worrall, M. (1994). Congruence reconsidered.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2(2), 197-206.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3), 411-421.
- Watkins, C. E. (1985). Countertransference: Its impact on the counseling sit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3(6), 356-359.
- Wood, A. M., Linley, P. A., Maltby, J., Baliousis, M., & Joseph, S. (2008). The authentic person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hentic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385-399.

원 고 접 수 일 : 2017. 01.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4. 10

게 재 결 정 일 : 2017. 05. 20

Counselor Authenticity and the Working Alliance: Mediating Effects of Counselor Relationship Skills and Client Perception of Counselors

Jung-Soon Hong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authenticity, counseling relationship skill, client perception of counselors, and the overall working alliance. 222 counselors and clients completed scale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counselor authenticity indirectly effected the working alliance via the counselor's relationship skills and the client's perception of counselors. In addition, the counselor's authenticity had a direct effect on the working alliance.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final model depending on the career length of counsel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nal model could also apply to both beginning and senior-level counselor group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or, authenticity, counseling relationship skill, client perception of counselors, working alliance